

4차 산업혁명 시대 뉴노멀 방향 제시 '나침반' 될 것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원주1)은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산업체제 개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2021년 새해를 맞아 도의회가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너진 전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보는 송지용 의장을 찾아 포부를 들어본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풍요로움과 부의 상징이면서 신성한 기운을 지닌 신축년 '흰 소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고 여유가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코로나19와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도민 모두에게 전례 없는 경제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올 한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안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도 제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짚어보신다면?

도의회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면서 도민께 사랑받는 의회, 현안 선제 대응과 정책 대안 제시로 반영하는 전복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선서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고,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상시운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4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78건의 민생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도정 관련 46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해 도민을 대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예산 715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 요구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꼭 막힌 현안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하고 정책 대안 제시로 전복 뫍을 찾고 지켰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전북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공항 항공기 운항 개선, 댐 관리 부실 홍수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전라선 고속화와 동서 연결철도사업 추진, 부창대교 건설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수해 피해로 남원만 지정됐던 특별재난지역은 의회의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6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해소, 군산공항 운항 개선,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연기 등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에 선제 대응하

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새해 도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올 한해는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 전북도가 뉴노멀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견인하기 위해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와 탄소, 수소와 전기차, 드론, 로봇 분야에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도 전북에 지정돼 탄소 산업 역시 선점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여기에 상용차 공장과 수소차 핵심부품인 수소탱크 생산 기업과 각종 연구기관이 집중된 수소경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탄소와 수소 신산업 투트랙을 통한 탄소산업 주도권 확보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4차 산업의 트렌드인 드론 산업은 전 세계가 생소한 신생 사업입니다. 콘텐츠 응용 등 경쟁력을 높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속도전이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메가시티, 전북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등 도정과 의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업입니다.

전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2021년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상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행복과 전북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견제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는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극복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더 협력해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집행부가 도민의 눈높



전북도가 뉴노멀 선도 위해 강력한 선제 대응 나서는 것
재생에너지·탄소·수소
전기차 등 분야에 경쟁력 있어
탄소·수소 신산업 투트랙
산업 주도권 확보전략 필요
뉴노멀 중심축 역할 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할 것

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꼼꼼히 살피며 도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사무처 조직의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의정활동은 자치입법 제정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와 예산 심사, 도민 의견 대변이 핵심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사무처 조직진단과 개편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의회사무처 기구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뒤

살임·특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으로 자치입법과 집행부 정책 및 예산 심의 등 한층 전문화된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입법지원팀은 자치입법과 정책 입안을 위한 조사와 분석 등이 이뤄지고 예산정책분석팀은 집행부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 분석은 물론 결산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그에 따른 예산편성 여부 등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치와 지방의회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전문위원실과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실,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배치가 마무리되면 교육·학예분야 심의 보좌 기능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전북발전을 이끌 도정 주요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도정의 핵심 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과 방역,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한국형 뉴딜 등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은 물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사업 반영,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전주·원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 새만금 신공항 조지 건설, 부창대교건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엄중한 시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과 민생경제 활력, 무너진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면?

코로나19로 도민들의 일상과 경제가 흔들렸고,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도내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률적 보살 대책을 마련하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만큼 생계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그동안 견뎌 주셨는데,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가 오기 전에 지방정부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공유재산 처분과 지방채 발행 등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도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올 한해 소의 걸음처럼 더욱 우직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도민을 지키고 도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호상 기자

새해 새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신축년 새해

끈기와 묵묵함을 상징하는 하얀 소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군산시의회 일동 -

- 2021年度 群山市 議會 運營 計劃(案) -

회기별	개최시기 기간	주요 내용	비고
제235회 임시회	1.26~2.5 (11일간)	• 부의안건 처리 •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안전심사(의) 간담회(의) 업무보고(의)
제236회 임시회	3.12~3.23 (12일간)	• 부의안건 처리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해빙기)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 결산검사 위원 선임	안전심사(의) 현장방문(의) 예산안(의)
제237회 임시회	4.21~4.27 (7일간)	• 부의안건 처리	안전심사(의) 현장방문(의) 간담회(의)
제238회 제1차 정례회	6.9~6.22 (14일간)	• 부의안건 처리 • 2020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2021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안전심사(의) 현장방문(의) 결의(의) 업무보고(의)
제239회 임시회	7.13~7.15 (3일간)	• 부의안건 처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안전심사(의)
제240회 임시회	9.1~9.9 (9일간)	• 부의안건 처리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안전심사(의) 상임(의) 결의(의)
제241회 임시회	10.12~10.22 (11일간)	• 부의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2021. 업무실적 및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심사(의) 간담회(의) 업무보고(의)
제242회 제2차 정례회	11.11~12.20 (140일간)	• 부의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9월간) • 결산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심의	본회의(의) 안전심사(의) 현장방문(의) 행정감사(의) 추경안(의) 본예산(의)

* 총회의일수 : 8회 / 107일(정례회 54일, 임시회 53일) / *본 계획안은 의회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